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순항'

함평군 "축산메카·경제활성화 다잡는다"

2027년까지 7692억 원 투입...내년도 1차 예산 43억 원 확보 '성공'



충남 천안에서 전남 함평으로 이전이 확정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이하 자개부) 이전사업이 내년도 1차 예산 43억 원을 확보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해당 예산이 당초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 지역 정치권까지 자개부 조기 이전에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자개부 함평

이전 1차년도(2021년도) 사업비 예산 43억 원이 전남 국회 분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1차년도 예산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면서 자개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함평군의 작업도 동시에 빨라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는 농촌진흥청 산하 스마트 축산 연구기관으로 가축 개량, 초지·사료 등을 연구하는 국가기관이다.

군은 지속가능한 축산자원개발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이전사업을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끝에 지난해 9월 국립축산과학원과 자개부 함평 이전에 최종 합의했다.

이전 사업에는 총 사업비 7692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가축개량평가과 등 4개 부서 202명의 직원을 함평군 신광(손불)면 일원 642.6ha에 완전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 1차년도부터 기본설계, 문화재조사 등 각종 용역사업과 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2차년도에는 토지보상과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개부가 이전되면 함평은 미래 축산 R&D 기반 구축과 맞춤형 축산기술 향상 등을 통해 지역 축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과 연계되면 새로운 미래축산 연구의 중심지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가 지역에 풀리면 확장 재정과 비슷한 상당한 경제 부양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자개부 이전으로 연구 보조인력 등 신규 일자리 창출과 200억 원 가량의 자개부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지역에 매년 재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은 "지역발전을 위해 평생 터전을 양보한 군민들의 희생 덕분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 사업이 조기에 본 궤도에 올랐다"면서, "약 200억 원이 소요되는 진입도로 개설 등 인프라 개선 사업도 앞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된 만큼 앞으로는 관련 국비확보에 주력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민 지원 대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1004섬 신안 '섬 겨울꽃 랜선 축제' 개막 11일부터 52일간 압해읍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개최

신안군은 오는 11일부터 52일간 압해읍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섬 겨울꽃 랜선 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랜선 축제의 주인공은 분재공원내 5ha의 부지에 식재된 1만7천그루의 애기동백길 3km에서 흰색과 분홍색, 빨강 색의 애기동백꽃 2004만송이를 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는 랜선 축제이다.

섬 겨울꽃 홈페이지(www.섬겨울꽃애기동백축제.com)를 통해 애기동백꽃과 애기동백 회화전을 방송할 계획이다.

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따라 당초 계획했던 체험행사는 모두 취소하고, 랜선축제로 대체 하였으나 직접 찾아올 관광객들을 위해 애기동백길을 탐방하며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했다.

총 5개소의 특색있는 포토존과 곳곳의 아기자기한 장식물들이 겨울바람 속에서 피어난 애기동백꽃과 잘 어우러져,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에서는 입구부터 철저한 발열 체크와 방역을 실시하고, 향균 손잡이도 설치하는 등 1004섬을 찾는 방문객이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축제기간에는 관람객 10만여명이 다녀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축제가 열리는 천사섬분재공원은 압해읍 송공산 남쪽기슭 1만7천ha의 아름다운 다도해 바다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13ha의 부지에 분재원과 야생화원, 수목원, 초화원, 삼림욕장 등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명품분재와 아프리카 석조 문화의 진수인 소나조각품을 전시하고 있는 곳으로 그야말로 바다 위 꽃 정원으로 한겨울에 2004만송이의 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 압해 애기동백숲은 '2020년에 꼭 가봐야 할 블루이코노미 명품숲'에 선정되었다.

영암군, 지역단위 푸드플랜 2차 중간보고회 약 6개월 동안 연구용역 통해 먹거리 종합 전략 수립 추진



영암군은 지난 2일 군청 남산실에서 박종필 부군수 주재로, 군의원, 농협중앙회영암군지부장, 농협장, 지역 먹거리 관련 단체 대표,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 푸드플랜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먹거리 종합 전략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이날 보고회는 과업지시에 따른 그간의 용역추진 경과보고 및 푸드플랜 추진전략에 대한 설명과 1차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그 보완책

제시,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 수행업체인 에버그린 컨설팅(주)은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안, 농가조직화 방법, 공공급식에 농산물을 제공하는 농가에 대해 일정한 가격을 보장해 주는 기준가격 보장제, 군 차원에서 품질을 보장하는 군수품질 인증제 등을 제시하였다.

영암군 관계자는 "푸드플랜은 지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농촌사회의 고령화·과소화 등 농업기반 취약화에 대해 농업·농촌 경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성이 큰 계획으로, 당장의 수익성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영암군 푸드플랜의 성공을 위해서는 생산·소비·유통·행정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광군, 풍력발전 유지보수 직무교육 종료

영광군은 1일부터 4일까지 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2층에서 실시한 풍력발전 유지보수인력 직무교육을 종료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월에 에너지밸리리산학융합원과 맺은 풍력에너지산업 활성화 및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영광군과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이 공동 주관하였다.

관내 풍력발전소에 재직 중인 20명의 교육생들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풍력터빈 오일교환 및 유분석 해석, 풍력발전기 고장사례 분석 및 상태모니터링, 전력변환장치 운전 제어 방법을 학습하였다.

목포시, 영산강하구폐기물 처리 완료

목포시는 금년 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발생한 영산강 하구에 적치된 폐기물 약 2,701톤의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영산호를 뒤덮은 약 3,000톤에 달하는 초목류 처리를 위해 예비비 1억원을 투입해 약 9일 만에 부유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하고 영산강 하구둑 둔치에 적재했다.

이후 적재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국비를 요청하고 건조하던 중 무더운 날씨로 인한 악취 등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비비 7억5천만원을 긴급 투입하고 지난 10월 8일부터 수거작업에 나섰다.

시는 11월 18일까지 적재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쓰레기 수거를 위해 공공근로 인력을 7일간 매일 50명씩 투입해 영산강 하구둑을 말끔하게 정리했다.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